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4월 27일 경찰공무원(1차)



2019. 04.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 기관에서는 신년도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3월부터입니다.
② 등굣길에 있는 신호등의 갯수와 점등 횟수를 점검하십시오.
③ 어떡해 번번히 합격율이 낮습니까?
④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할게.

01 ④ 국어생활-한글맞춤법

• 미처: [부사]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 할게: '-ㄹ게'는 종결 어미로서, 된소리로 발음나더라도 예사로시로 표기한다. 할께(×)
[참고]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으)ㄹ거나	-(으)ㄹ지니라
-(으)ㄹ걸	-(으)ㄹ지라도
-(으)ㄹ게	-(으)ㄹ지어다
-(으)ㄹ세	-(으)ㄹ지언정
-(으)ㄹ세라	-(으)ㄹ진대
-(으)ㄹ수록	-(으)ㄹ진저
-(으)ㄹ시	-올시다
-(으)ㄹ지	

[오답 해설]
① 회계년도→회계 연도. 회계연도
'연도(年度)'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으로서, '회계 연도, 졸업 연도' 등과 같이 쓴다. 그리고 경제 전문어인 이 말은'회계 연도'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와 같이 붙여 적을 수도 있다.
• 신년도(○)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러나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로 적는다. 따라서 '新年+度, 舊年+度'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도 '신년도, 구년도'로 적는다.
② 갯수→개수
• 갯수→개수[개쑤]
'개수(個數)'는 [개쑤]로 소리가 덧나더라도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으므로 '개수'로 적는다.
• 등굣길[등교낄/등굗낄]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등교(登校)+길'이 구성으로 [등교낄/등굗낄]로 발음하므로 '등굣길'로 표기한다.
• 횟수(回數)[회쑤/휃쑤]
한자어의 경우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의 여섯 가지는 사이시옷을 바치어 적는다.
③ 어떡해→어떻게, 번번히→번번이, 합격율→합격률
• 어떡해→어떻게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형용사 '어떻다'의 부사형, 즉 '어떻(어간)+게(부사형 어미)'이다. 따라서 문장성분이 부사어이므로 뒤에 용언을 수식한다. 반면에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서,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이 일을 어떡해.(=어떻게 해.)
• 번번히→번번이
첩어로 된 명사 뒤에는 부사화 접사 '-이'가 붙는다.
예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합격율→합격률
☞'율/률'이 구분
┌자음+률: 합격률, 법률, 능률
└모음/ㄴ+율: 비율, 백분율, 출산율

2. 다음의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경우, 의미가 변하여 파생어가 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② '언제∨할∨지∨모른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교재의∨제∨일장': '제-'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썼으므로 맞지 않다.
④ '떠난지가∨오래다':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붙여 쓸 수 있다.

02 ③ 국어생활-띄어쓰기

③ '제(第)-'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제∨일장'을 바르지 않다. 그리고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으므로 '제일 장' 또는 '제일장'으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파생어→합성어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은 합성어로서 '우리나라'로 붙여 적고,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워 자기 나라를 이르는 경우라면 '우리 나라'로 띄어 쓴다.
② 언제∨할∨지 →언제 할지: 하(어간)+'-ㄹ지(연결어미)
'언제∨할지∨모른다'에서 '-ㄹ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다만,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④ 떠난지가→떠난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

3.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장 부호의 사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 즉 '한(恨)'을 말한다.
② 그는 "우리말(國語)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선배가 "나는 시민을...." 하면서 가셨는데 말끝을 잘 듣지 못했다.
④ 날짜: 2019. 4. 27. 토요일

03 ② 국어생활-문장부호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따라서 '우리말[國語]'로 써야 한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쓴다. 따라서 큰따옴표의 사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즉', '다시 말해', '이를테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쓴다.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③
•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큰따옴표(" ")를 쓴다.
• 할 말을 줄였을 때 줄임표(……)를 쓴다. 줄임표는 여섯 점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세 점을 찍는 것도 허용된다. 점을 아래에 찍는 경우에도 마침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마침표를 포함하면 아래에 네 점 또는 일곱 점을 찍는 셈이다.
④
•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는 쌍점(:)를 쓴다. 이때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쓴다.

4. 국어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찾을 도리'는 [차즐또리]로 발음하면 된다.
② '맑고 맑다'를 [말꼬]와 [막따]로 소리 내어 읽었다.
③ 김희혜 씨의 이름을 글자대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표준 발음법」에 따라 [김히헤]로 호명하였다.
④ 현대 국어의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가지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keik]로 발음되는 외래어를 '케잌'이라 적지 않고 '케익'으로 적었다.

04 ④ 국어생활-한글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④ 현대 국어의 종성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고, 외래어 표기의 받침에는 'ㄱ,ㄴ,ㄹ,ㅁ,ㅂ,ㅅ,ㅇ'의 7개를 쓴다. 따라서 발음이 [keik]으로 발음되는 외래어는 '케익' 또는 '케잌'이 아니라 '케이크'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찾을'의 발음은 [차즐]이 된다.
그리고 관형사형 '-ㄹ/-을' 다음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은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찾을 도리'의 발음은 [차즐또리]이다.
② 겹받침 'ㄺ'은 [ㄱ,]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고 맑다'는 [말꼬], [막따]이다.
③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따라서 '희'는 [히]로 발음한다.
• 'ㅖ, ㅒ' 이외의 'ㅖ'는 [ㅖ]로 발음하되 [ㅔ]로도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혜'는 [혜(원칙)/헤(허용)]로 발음한다.
따라서 '김희혜'의 발음은 [김히혜(원칙)/김히헤(허용)]이다.

5.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가 발달하여 어순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다.
② 어휘의 종류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구분되며, 친족어나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③ 자음 중에서 파열음(폐쇄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3항 대립을 보인다.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

05 ① 현대문법-국어의 특징

① 국어는 주로 활용 어미와 조사에 의해 여러 문법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다. 국어의 문장 성분 가운데 가장 고정적인 것은 서술어다. 서술어의 위치는 문장의 맨 끝이 기본적이다. 서술어가 문장 끝에 위치하고, 나머지 문장 성분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물론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의 이동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주어는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하며, 목적어나 보어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그들이 수식하는 문장 성분 바로 앞에 오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런데 관형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 위치에서 이동될 수 없지만, 부사어는 여러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어는 문장 가장 앞이나 가장 뒤에 위치한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이기는 하지만 전혀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 국어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한자어-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brother'이라 할 것을 우리말에는 형, 오빠, 아우, 동생 등 관계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분화되어 있다. 'aunt'는 '큰어머니, 작은 어머니, 고모, 외숙모'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 음성 상징어는 특정한 소리와 특정한 의미가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다. 음성 상징어에는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있다. 멍멍, 꼬끼오는 의성어, 그렁그렁, 뚝뚝은 의태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성어, 의태어가 상당히 발달해 있다. 게다가 자음과 모음의 교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기까지 한다. '깡충깡충'은 경쾌하지만 '껑충껑충'은 무거운 느낌이 난다.
③ 파열음, 파찰음은 평음-경음-격음으로 서로 변별적으로 3항 대립을 한다. 가령, 예사소리 /ㄱ/은 된소리 /ㄲ/, 거센소리 /ㅋ/과 3항 대립을 이루는 것이다.
④ 공손성이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태도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국어에서 발화를 공손하게 표현하려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경어법(높임법)이고,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편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 등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① 4월이면 매년 <u>시에서</u> 나무를 심었다.
② 어느덧 벚꽃이 <u>활짝</u> 피었다.
③ 목련은 <u>소리도 없이</u> 진다.
④ 사람들은 <u>그곳에서</u> 봄을 즐겼다.

06 ① 현대문법-문장성분

① '에서'는 부사격조사이지만,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



어임을 나타내는 경우 주격 조사로서, 문자성분이 주어이다.

[오답 풀이]
② 부사 '활짝', ③위 부사절 '소리도 없이', ④의 '그곳(체언)+에서(부사격조사)' 등은 모두 부사어이다.

7. 다음 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포돌이가 웃는다. 그리고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웃는다.
㉢ 포돌이와 포순이가 서로 닮았다.
㉣ 포돌이 및 포순이가 웃는다.

① ㉠의 '그리고'는 문장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므로 감탄사이다.
② ㉡의 '와'는 그 앞말이 필수적인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의 '와'는 두 문장이 결합되었음을 뜻하는 접속 조사이다.
④ ㉣의 '및'은 두 문장이 결합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문장 부사)이다.

07 ④ 현대문법-품사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이며,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부사이다.
☞[참고] 부사의 갈래
1) 성분분사: 무장 내의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2) 문장주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① 양태부사: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로서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등
② 접속부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곧', '및', '혹은', '또는' 등

[오답 풀이]
① ㉠의 '그리고'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이며,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부사이다.
② ㉡의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따라서 제시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이때 '와'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쉼표를 찍는다.
'와/과'의 쓰임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거나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경우 필수 부사어로서, 부사격 조사이다.
③ ㉢의 '닮다'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므로 '포돌이와'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며, 이 문장은 홑문장이다.

8. 다음 밑줄 친 '-고' 중에서 겹문장(복문)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는 어미를 모두 고른 것은?

저 아이가 형이겠㉠고 네가 동생이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너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었지. 그래, 요즘은 건강하㉢고? 운동은 좀 하㉣고 있니?

① ㉠, ㉡ ② ㉡, ㉢ ③ ㉢, ㉣ ④ ㉠, ㉣

08 ③ 현대문법-문장의 갈래: 어미의 기능

㉢의 '-고'는 어떤 물음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하고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물음, 부정(否定), 빈정거림, 항의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의 '-고'는 본용언(하고)과 보조용언(있니)를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이다.

[오답 풀이]
㉠의 '-고'는 아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의 '-고'는 앞 문장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문장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9. 높임법(존대법)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할머니께서는 항상 북녘을 바라보며 여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② 이제는 꽃가마에 누워 저 멀리 가십니다.
③ "할머니! 아버지도 그 뜻을 압니다!"
④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09 ④ 현대문법-높임법

④의 표현은 높여야 할 주체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나 밀접한 관련이 되는 사물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높임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유지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십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참고]
• 유지(遺志):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루지 못하고 남긴 뜻.
• 유지(遺旨):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가졌던 생각.

[오답 풀이]
① 할머니께서~계셨습니다: 주체높임
② 가+시(주체높임)+ㅂ니다(상대높임)
③ 주체보다 상대가 높임의 대상인 압존법으로 상대인 '할머니'를 종결어미 '-ㅂ니다'로 높이고,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지 않은 올바른 표현이다.

10. 다음 문장 중에서 의사 전달이 가장 명확한 것은?

① 다시 풀려진 묶었던 머리를 나는 움직이지 않게 더 꽉 묶였다.
② 그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한다.
③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④ 두 명의 경찰이 범인 둘을 잡았다.

10 ③ 국어생활-비문의 유형

③ 쉼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따라서 관형어 '안전을 지키는'은 바로 뒤의 '여러분'이 아닌 '경찰'을 수식하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풀려진'은 '풀+리(피동접사)+어지다(통사적 피동)'의 이중피동표현이다. 따라서 '풀린' 또는 '풀어진'으로 표현해야 한다.
② '그'가 다른 사람의 이발을 해주는 이발사인지 이발을 하는 소님인지 중의적 표현이다.



④ 두 명의 경찰이 '함께' 범인 둘을 잡은 것인지, 두 명의 경찰이 각각 한 명씩 두 명의 범인을 잡은 것인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부(富)도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낭비는 여분의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분의 재물이란 곧 잉여의 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의복의 사치는 뭇 사람들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도 미워하는 것이자 복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후 "여자가 방물장수를 널리 불러들여 진귀한 비단, 가는 모시 베, 고운 삼베, 용을 아로새긴 비녀, 나비 모양의 노리개 등을 사들여 치장하면 식자(識者)들은 벌써 그 남편이 바르지 못함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부인은 무릇 "나무 비녀에 베치마를 입어서 성장(盛裝)한 다른 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는 ㉠부패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고 합리적인 지출과 검소를 중시하는 금욕적 도덕주의가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간이 언론에서 ㉣낭비를 마치 큰 범죄나 되는 듯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소비에 대한 경직된 사고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낭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낭비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넘어선 모든 생산과 소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모든 사치품, 모든 유행, 모든 음식 쓰레기가 낭비이며, 공장의 과잉 설비 역시 낭비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물품 이외에 더 이상을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더 이상 문화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1. 위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물건의 낭비와 부(富)를 부정적으로 여겼다.
②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공직자 부인의 첫째 덕목으로 검소함을 꼽았다.
③ 현대 사회에서도 낭비를 죄악으로 여기는 경직된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
④ 생활에 필요한 물품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

11 ② 비문학-내용 확인

② 둘째 단락에서 정약용은 공직자 부인은 사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검소가 첫째 덕목이라는 설명은 없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단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낭비, 부(富)를 죄악으로 여겼다는 설명이 있다.
③ 셋째 단락을 보면, 현대사회에서도 사치와 낭비를 죄악으로 여긴다는 설명이 있다.
④ 마지막 넷째 단락에서 우리의 삶은 꼭 필요한 생필품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12. ㉠~㉣의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① ㉠ 膚敗 ② ㉡ 直決 ③ ㉢ 奢移 ④ ㉣ 浪費

12 ④ 한문-한자 어휘

④ 낭비(浪費: 浪 물결(함부로) 낭/費 쓸 비):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씀.

[오답 풀이]
① ㉠ 膚敗 → 부패(腐敗)
• 부패(膚敗: 膚 살갗(피부, 겉) 부/敗 패할 패)
• 부패(腐敗: 腐 썩을 부/敗 패할 패)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
② ㉡ 直決 → 직결(直結)
• 즉결(直決: 直 곧을 직/決 결단할 결)
• 직결(直結: 直 곧을 직/結 맺을 결)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
③ ㉢ 奢移 → 사치(奢侈)
• 사치(奢移: 奢 사치할 사/移 게 할 치(옮길 이))
• 사치(奢侈): 奢 사치할 사/侈 사치할 치)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13.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표현 행위는 사고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는 당연히 사고 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을 하고 난 뒤에나 글을 쓰고 난 뒤에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발전된 생각을 얻기도 한다. 또한 청자나 독자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확신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고와 표현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 사고와 표현 활동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이 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 보면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좀 더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습관도 생긴다. 한편 표현 활동을 하다 보면 어휘 선택, 내용 조직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이를 통해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 이



2019. 04.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렇게 사고력과 표현력은 상호 협력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흔히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을 들기도 하는데,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다상량'은 충분한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말하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 활동과 사고 활동의 관련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① 충분한 사고 활동 후에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은 세련되게 된다
② 사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사고와 표현 활동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능력을 상승시킨다
④ 말하기보다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사고 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3 ③ 비문학-이어지는 문장 추론

첫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표현 행위는 사고 활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사고와 표현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로 끝맺음을 하였다. 따라서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 둘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이렇게 사고력과 표현력은 상호 협력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로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에는 ③의 내용이 적절하다.

14.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고사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짬짬이 아주 조금씩 독서를 시작한다. 독서는 책상에 앉아 책상 등을 켜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타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에서도 시간적 여유와 앉을 자리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짬짬이 독서'를 추천한다. 항상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5~10분간 2~3장 읽고, 친구나 음식을 기다리면서 5~10분을 읽는다. 분량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다. 두꺼운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짬짬이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① 矯枉過直　② 深思熟考
③ 尸位素餐　④ 水滴穿石

14 ④ 한문-한자성어

글쓴이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5~10분간 2~3장 읽고, 친구나 음식을 기다리면서 5~10분을 읽는 '짬짬이 독서'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④의 수적천석(水滴穿石)이 적절하다.

① 교왕과직(矯枉過直: 矯 바로잡을 교/枉 굽을 왕/過 지날 과/直 곧을 직)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 [유] 소탐대실(小貪大失), 교각살우(矯角殺牛)
② 심사숙고(深思熟考: 深 깊을 심/思 생각 사/熟 익을 숙/考 생각할 고) 깊이 잘 생각함. [유] 심사숙려(深思熟慮)
③ 시위소찬(尸位素餐 : 尸 주검 시/位 자리 위/素 흴 소/餐 밥 찬) 재덕이나 공적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녹만 받는다는 뜻으로, 자기 직책을 다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④ 수적천석(水滴穿石 : 水 물 수/滴 물방울 적/穿 뚫을 천/石 돌 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 [유] 우공이산(愚公移山), 마부위침(磨斧爲針), 산류천석(山溜穿石)

15. <관동별곡>의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小쇼香향爐노 大대香향爐노 눈 아래 구버보고,
正졍陽양寺ᄉᆞ 眞진歇헐臺ᄃᆡ 고텨 올나 안조마리,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어와, 造조化화翁옹이 ㉠헌ᄉᆞ토 헌ᄉᆞ할샤.
놀거든 쒸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잣ᄂᆞᆫ듯, 白빅玉옥을 믓것ᄂᆞᆫ듯,
東동溟명을 박ᄎᆞᄂᆞᆫ듯, ㉡北북極극을 괴왓ᄂᆞᆫ듯.
놉흘시고 望망高고臺ᄃᆡ, 외로올샤 穴혈望망峰봉이
하ᄂᆞᆯ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千쳔萬만劫겁 디나ᄃᆞ록 구필 줄 모ᄅᆞᄂᆞᆫ다.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니 ᄯᅩ 잇ᄂᆞᆫ가

①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이다.
② ㉡의 지시적 대상은 '북극성'이지만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③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 과장법, 대구법,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④ 금강산 봉우리들의 모습에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으로서 작가 자신을 견주고 있다.

15 ③ 고전문학-가사: 표현상 특징

③ 은유법, 대구법, 과장법 등의 표현은 있으나,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진헐대에서의 조망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하여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놀거든 쒸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는 산봉우리의 변화 무쌍한 모습을 활유법, 대구법,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芙부蓉용을 고잣ᄂᆞᆫ 듯, 白빅玉옥을 믓것ᄂᆞᆫ 듯'은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 대구법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또한 '놉흘시고 望망高고臺ᄃᆡ,~너 ᄀᆞᄐᆞ니 ᄯᅩ 잇ᄂᆞᆫ가'에도 도치법, 영탄법, 의인법, 대구법이 드러난다. 그리고 '北북極극'과 '하ᄂᆞᆯ'은 임금을, '望망高고臺ᄃᆡ'와 '穴혈望망峰봉'은 작자 자신을 상징하는 은유법이다.

[오답 풀이]
① ㉠ 헌ᄉᆞ토 헌ᄉᆞ홀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② ㉡ 北북極극: 임금
④ '望망高고臺ᄃᆡ'와 '穴혈望망峰봉'은 작자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닌 cdtla으로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019. 04. 2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출전: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1. 해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후 지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충성과 목민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이 함께 드러나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양반 가사. (295구) 기행 가사
2) 연대: 선조 13년(1580년) 45세 때
3) 율격: 3(4).4조 4음보의 연속체
4)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에 대한 찬탄 및 유교적 충의 사상 표출
3. 제시 지문의 현대어 해석
소향로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 보고,
정양사 진헐대(석벽 이름)에 다시 올라 앉으니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 (진헐대)에서 다 보인다.
아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나 말거나, 섰거나 솟지나 말거나, 할 것이지 날고 뛰고 섰고 솟은 변화무쌍한 산봉우리여,
부용(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그렇게도 아름다운 산봉우리여.
동해 바다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 그렇게도 힘찬 기상의 산봉우리여.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그 지조적 모습이 놀랍구나.)
아, 너로구나.(망고대, 혈망봉) 너같이 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는가?(아마도 없으리라.)

16. ㉠~㉤을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잎으로 곤충 따위의 작은 동물을 잡아서 소화·흡수하여 양분을 취하는 식물을 통틀어 식충 식물이라 한다. 대표적인 식충 식물로는 파리지옥이 있다.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는 파리지옥은 축축하고 이끼가 낀 곳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사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 두 개의 잎에는 각각 세 개씩의 긴 털, 곧 감각모가 있다.
㉡ 낮에 파리 같은 먹이가 파리지옥의 이파리에 앉으면 0.1초 만에 닫힌다.
㉢ 중심선에 경첩 모양으로 달린 두 개의 잎 가장자리에는 가시 같은 톱니가 나 있다.
㉣ 약 10일 동안 곤충을 소화하고 나면 잎이 다시 열린다.
㉤ 이 감각모에 파리 따위가 닿으면 양쪽으로 벌어져 있던 잎이 순식간에 서로 포개지면서 닫힌다.

파리지옥의 잎 표면에 있는 샘에서 곤충을 소화하는 붉은 수액이 분비되므로 잎 전체가 마치 붉은색의 꽃처럼 보인다. 파리지옥의 잎이 파리가 앉자마자 0.1초 만에 닫힐 수 있는 것은, 감각모가 받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수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잎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① ㉠-㉢-㉤-㉣-㉡ ② ㉢-㉠-㉤-㉡-㉣
③ ㉠-㉤-㉢-㉡-㉣ ④ ㉢-㉤-㉠-㉣-㉡

16 ② 비문학-논리적 연결
이어지는 단어을 찾아야 한다.
'㉢ 두 개의 잎 가장자리에 가시같은 톱니→ ㉠ 두 개의 잎에 긴 털, 감각모 → ㉤ 이 감각모에 ~닿으면 잎이~닫힌다→ ㉡ 낮에~닫힌다. → ㉣ 소화하고 나면 잎이 다시 열린다'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17. 다음 밑줄 친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국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역시 노동, 어머니는 장사를 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것은 귀국 즉시가 아니었고, 한번은 죽은 내 남동생의 주사를 맞히려고 하는데 집에는 돈 한 푼이 없어 이웃에게 빌리려고 했으나 어디 한 군데서도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 그 약값이 없어 동생은 죽었다. '없으면 문둥이보다 더 더럽다.'라는 것은 당신이 노상 한 말이었고,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장사판에 뛰어든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그 덕으로 우리는 살았다. 이때도 생선을 지고 그 뒤치다꺼리는 아버지가 했다. 그 장사를 몇 년 했다. 형이 장가든 것도, 내가 그런 것도, 또 밑으로 누이동생 둘이 시집간 것도, 다 어머니가 장사를 한 덕을 입었다. 큰 벌이는 아니었으나 그동안 먹고 지낸 것, 우리들 사 남매를 장가가고 시집가게 한 조그만 힘은 되었다. [중략]

어머니는 숱한 고생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였다.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지리도 고생스러운 나날이었다.

①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 ②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
③ 원님 덕에 나팔 분다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17 ① 속담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머니의 노력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①의 속담이 적절하다.

①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가기):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② 솔밭에 가서 고기 낚기: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솔밭(산)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유] 산에서 물고기 잡기.
③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원님(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하는 속담.
④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 학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라 하는 것은 도(道)를 전하고 학업(學業)을 주고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



람이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닐진대 누가 능히 의혹이 없을 수 있으리오. 의혹하면서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의혹된 것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나서 그 도(道)를 듣기를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요, 나보다 뒤에 났다 하더라도 그 도(道)를 듣기를 또한 나보다 먼저라고 하면 내 좇아서 이를 스승으로 할 것이다. 나는 도(道)를 스승으로 하거니, 어찌 그 나이의 나보다 먼저 나고 뒤에 남을 개의(介意)하랴! 이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것이요,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① 스승은 도(道)를 전하고 의혹을 풀어 주는 사람이다.
② 도(道)가 있는 사람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의혹되는 바가 있으면 스승을 좇아서 그 의혹된 것을 풀어야 한다.
④ 나보다 먼저 난 이가 도(道)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가 아니다.

18 ② 비문학-글의 주제

제시 글의 내용은 반드시 스승이 있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으며, 나이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것이며, 도(道)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참고]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

1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① 그늘을 나무가 짓는 농사로 본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② 사전에 나오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여 여러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준다.
③ 다른 존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늘은 나무가 자라면서 저절로 드리워지는 것이다.
④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산수유나무가 대비되고 있다.

19 ③ 현대시-표현상 특징

③ '그늘'은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고 휴식을 주는 공간이다. 작품을 보면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이 있다. 즉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 표현은 나무에 당연히 그늘이 지는 것이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산수유나무가 짓는 농사로 본 참신한 발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옥말려든다'는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문맥상 '말려들고 좁아지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타인에게 베푸는 존재인 반면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존재이다.

※출전: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상징적, 자연친화적
3) 주제
• 산수유나무가 주는 배려와 평안함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필요성
4) 특징
• 대상인 자연을 바라보는 참신한 발상이 드러남
• 섬세한 눈으로 사물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발견함
• 인간과 자연의 대비적 속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드러냄-산수유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타인에게 베푸는 존재인 반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 일반적으로 '그늘'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윗글에서 '그늘'은 편안함, 휴식, 쉼터, 또는 남에 대한 배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행을 베푸는 모습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 '노란 꽃', '꽃', '노란 좁쌀'은 산수유나무의 '꽃'을 가리킨다. '그늘'은 꽃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마음의 그늘'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관계된다.
• 자연물인 산수유나무를 사람인 '농부'에 비유한 점에서 직유법과 의인법이 쓰였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존재
산수유나무의 결과물①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간, 편안함 배려하는 공간
산수유나무의 결과물②
그늘은 노랗지 않다
꽃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 그늘도 산수유나무의 결과물임을 강조
산수유나무의 꽃과 그늘(꽃을 통한 발상)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산수유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대비
말려들고 좁아지다
덕이 모자라고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을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쳤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그늘을 키우는 과정, 그늘에 대한 가치 부여
나무가 한 해 농사를 지어 만들어 낸 그늘(그늘을 통한 발상)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농부 (의인법)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화려함(일차원적)



그윽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존재(다차원적)
꽃이 필수록 그늘이 넓어짐, 꽃과 그늘은 대립이 아니라 상승과 조화의 효과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직유법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좁쌀처럼 작고 노란 산수유 꽃
그늘의 밀도가 무게가 있음
산수유 꽃과 그늘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참신한 표현)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 모습(나무를 통한 발상)

활동> '산수유나무의 그늘'의 함축적 의미는?
꽃이 필수록 넓어지는 그늘은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고 휴식을 주는 공간

활동> '그늘도 노랗다'의 의미와 효과를 말해 보자.
꽃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 그늘도 산수유나무의 결과물임을 강조하는 효과

활동>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구절의 의미와 효과를 말해 보자.
산수유나무=농부 (의인법)
농사-그늘을 키우는 과정
그늘에 대한 가치 부여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

활동> 이 시에서 대비적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 설명해 보자.
산수유나무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편안함 배려하는 존재
사람들
덕이 모자라고 이기적인 인간 존재

활동> '산수유나무 그늘'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는 공간
다른 생명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활동>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에서 꽃과 그늘의 관계는?
꽃은 일차원적인 아름다움 그늘은 다차원적인 아름다움으로
꽃으로 인해서 그늘이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상승과 조화의 효과

활동>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 그늘의 밀도를 참신하게 표현한 구절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

20.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 채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비로소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과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몸을 씻은 다음 상 앞에 앉아서도 나는 아직 아주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러나 그런 건 괘념할 필요가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두른 흔적이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線)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형이 낮에 나의 그림을 찢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던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천 리 길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던 수수께끼의 해답도 거기 있었다. [중략]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 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 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폭은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몰랐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① 형이 맺은 소설의 결말은 동생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② 형은 환자의 죽음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소설 쓰기를 통해 극복한다.
③ 동생은 형이 쓴 소설을 읽으면서 뚜렷하지 않은 자신의 아픔을 돌아본다.
④ 동생은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혜인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20 ④ 현대소설-인물의 성격
④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으므로 아픔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모르는 '나(동생)'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앞 부분에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는 설명이 있다.
② 형은 6·25의 전상자로서, 그 상처를 소설 쓰기를 통해 돌아보고 극



복한다.
③ 동생은 형과 대비가 되어, 자신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 모르며, 자신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전: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1.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에서 얻은 심리적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세대를 대표하는 '형'의 고통과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자 동생인 '나'의 서로 다른 고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2. 핵심 정리

1) 갈래: 단편소설, 액자소설

2) 성격: 논리적, 사변적

3) 배경:

① 내부액자: 시간(6.25 전쟁 때), 장소(강계의 어느 시골)

② 외부액자: 시간(1960년대), 장소(화실, 병원)

4) 시점: 1인칭 주인공(바깥 이야기) 및 관찰자 시점 혼합(안 이야기)

5) 주제:

①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하여 '아픔'의 원인과 그 극복 과정을 형상화함.

② 삶의 방식이 다른 두 형제의 아픔과 그 극복 의지

5) '형'과 '나'의 차이

• 형은 현실 지향적, 적극적 대처, 뚜렷한 상처, 관념 극복

• 아우(나)는 관념 지향적, 수동적 관조, 대상이 없는 아픔. 현실 도피

6) 등장 인물 소개

'나' (동생)	화가. 전후 세대를 대표하며 뚜렷한 원인 없이 현실에 대하여 무기력함과 패배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형	외과 의사. 6·25 전쟁을 체험한 전쟁 세대이다. 최근에 소녀를 죽게 한 경험으로 인하여 과거에 전쟁에서 체험했던 상처가 되살아난다. 소설 쓰기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한다.
혜인	'나'의 애인이었으나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오관모	김 일병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인물로 인간의 이기심과 현실적 부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 일병	전쟁이 벌어진 암담한 현실에서 고통받는 인물이다.

7) 출전 : 1966년 9월 <창작과 비평>

3. 제목의 상징성

① '병신'은 정신적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형을, '머저리'는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동생을 의미함. 형은 소설을 쓰면서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동생은 형을 통해 삶을 반성함. 이러한 두 형제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행동하는 두 지식인상인 것임.

② '병신'은 6·25 전쟁의 체험으로 인해 실존적 방황을 하는 존재인 형을 말하며, '머저리'는 구체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은 관념적 혼돈을 보이는 4·19 세대인 '동생'을 말한다.

형(병신)		동생(머저리)
참전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	↔ 대조적	전후 세대로서, 구체적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관념적 혼돈
↓		↓
소설 쓰기를 통해 전쟁에서 겪은 충격과 죄책감이라는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극복함		상처의 근원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함

4. '형'과 '동생'의 차이점

형	참전 경험에서 비롯된 아픔-전쟁 세대의 아픔을 지닌 존재	--	소설 창작을 통해 아픔을 극복함
	↕ 대립과 갈등		
동생	관념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전후 세대의 아품을 지닌 존재	--	아픔을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함